



소개

메모박스 트래블 클락

바이 마크 뉴슨

전 세계 여행자를 위한 모던한 타임피스

주요 특징:

- **디자인과 워치메이킹 전문성의 완벽한 조화:** 저명한 디자이너 마크 뉴슨과의 협업을 이어가며, 매뉴얼 와인딩 방식으로 12 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고 메모박스 알람 컴플리케이션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칼리버 256 탑재
- **독창적인 다이얼 디자인:** 특허받은 메커니즘으로 구동되는 독창적인 파워 리저브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라인
- **리미티드 에디션 전용 맞춤형 여행용 키트:** 매년 고유 번호를 부여한 100 피스 한정 제작, 마크 뉴슨이 디자인하고 이탈리아 쿼오리에리아메중, 스케도니가 제작한 맞춤형 가죽 여행용 액세서리 제공
- **마크 뉴슨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 아이코닉한 디자이너의 협업을 이어가며, 독특한 비전을 통해 시간 측정과 디자인의 조화를 재해석한 최신 제품

예거 르쿨트르가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며 메모박스 트래블 클락을 새롭게 공개합니다. 여행용 시계에 대한 그랑 메종의 풍부한 유산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은 현대 여행자를 위한 이상적인 동반자를 새롭게 제시합니다. 손안에 쏙 들어갈 만큼 컴팩트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시계는 가벼운 티타늄 케이스와 따뜻한 촉감을 지닌 스케도니 가죽 파우치의 조화를 선보입니다. 메모박스 트래블 클락은 세계적인 국제 디자인 박람회,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인 2026 년 4 월 21 일부터 26 일까지 밀라노에서 예거 르쿨트르가 선보이는 '더 퍼페추얼 타임키퍼' 전시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여행의 유산을 담아낸 타임피스

예거 르쿨트르의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은 여행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듀얼 타임 및 월드 타임 손목시계와 다양한 형태의 여행용 클락을 탄생시켰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러한 기술적 전문성과 우아한 디자인을 결합하여 예상을 뛰어넘는 정교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되는 여행용 시계 유산을 구축했으며, 일부 시계에는 온도계와 기압계와 같은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1950 년에 출시된 아이코닉한 메모박스 알람 칼리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모박스는 기억하고, 알려주고, 깨워줍니다"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등장한 메모박스는 '기억의 목소리'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처음에는 사업가들이 약속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손목시계로 설계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처럼 탁월한 실용성을 갖춘 메모박스를 1950 년대 초부터 다양한 탁상용 클락 및 트래블 클락에 접목해 왔습니다. 시계와 클락 모두에서 메모박스 칼리버는 중앙 디스크 가장자리의 삼각형 포인터로 알람 시간을 표시하는 독창적인 다이얼과, 전통적인 학교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특유의 메모박스 사운드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마크 뉴슨과의 새로운 협업

예거 르쿨트르와 호주 출신의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은 2008년부터 협업을 이어 왔으며, 서로의 전문성을 결합해 뉴슨이 "복잡하고 마법 같은 오브제"라 묘사한 애프트모스를 고유의 시선으로 재해석합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협업을 통해 2008년의 칼리버 561, 2010년의 칼리버 566, 2016년의 칼리버 568 등 다양한 칼리버가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으로 유명한 마크 뉴슨은 10대 초반 애프트모스를 처음 본 순간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애프트모스의 특성에 주목한 그는 오브제 본연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정교한 디자인 변화를 더합니다. 마크 뉴슨은 예상을 뛰어넘는 소재를 활용하며 기술적인 관습에 도전합니다. 아날로그 오브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의 비전은 기능과 형태 모두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작품, 즉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향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기능과 형태의 완벽한 조화

기능과 형태의 완벽한 조화를 구현하는 마크 뉴슨은 메모북스가 지금까지 이어 온 기술적 및 시각적 계보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아름다움은 물론 실용성과 편의성까지 겸비한 현대적인 오브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에 예거 르쿨트르 또한 디자이너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탁월한 워치메이킹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시그니처 메모북스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완전히 새로운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256 으로 구동됩니다. 다른 모든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와 마찬가지로, 이 칼리버 역시 매뉴팩처에서 자체적으로 고안 및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와인딩에 대한 여행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칼리버 256 은 타임키퍼 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의 대형 배럴을 바탕으로 12 일이라는 경이로운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알람 기능을 위한 세 번째 배럴이 별도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메모북스 다이얼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은 원 안의 원으로 디자인되어, 커다란 아라비아 숫자를 중심으로, 좁은 창 형태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끊어진 원 형태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 1 일은 다이얼 상에서 1 시간에 해당하며, 배럴을 완전히 와인딩하면 12 개의 인디케이터가 모두 오렌지 컬러로 표시됩니다. 12 시 방향에서 시작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파워 리저브가 1 일씩 감소하면서, 해당 인디케이터가 하나씩 블루 컬러로 변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디스플레이 뒤에는 탁월한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거 르쿨트르가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오렌지 컬러 링과 고정된 블루 컬러 링, 두 개의 나선형 링이 서로 겹쳐 작동하는 구조가 돋보입니다. 메모북스의 상징적인 삼각형 알람 포인터가 장착된 다이얼의 움직이는 중앙 디스크를 둘러싼 고정 링에는 분이 표시됩니다. 슬림한 베젤과 강렬한 오렌지 및 블루 컬러 팔레트로 모던한 감각을 더하고 가독성을 높인 클락은 핸즈와 삼각형 모양의 알람 포인터에 수퍼-루미노바® 코팅을 채워 어두운 곳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선사합니다.

티타늄으로 제작된 메모북스 트래블 클락은 가볍지만 견고하며, 직경 69mm, 두께 18mm 의 슬림한 실루엣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 안의 원이라는 테마와 시각적 요소를 절제한 깔끔한 디자인을 이어가며, 케이스백에는 접이식 스탠드가 내장되어 책상이나 침대 옆 탁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베젤 아래 숨겨진 페리페럴 와인딩 크라운을 사용해 매뉴얼 와인딩, 시간 설정, 알람 설정을 조작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셀렉터 버튼으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및 블루 컬러 조합은 케이스백에도 이어집니다. 알람 파워 리저브를 표시하는 중앙 인디케이터는 파워 리저브가 줄어들면서 오렌지에서 블루 컬러로 변하고, 와인더 하단에는 블루 밴드가 적용되어 연간 100 피스 한정 제작되는 클락의 에디션 연도와 시리즈 번호를 포함한 다양한 인그레이빙이 새겨져 있습니다.

케이스 디스플레이: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한 세심한 디자인

메모박스 트래블 클락을 완성하기 위해 마크 뉴슨은 모데나 중심부에 위치한 유서 깊은 가죽 공방인 스케도니와 협업했습니다. 스케도니는 20 세기 중반 이탈리아 클래식 스포츠카 작업과 특유의 시그니처 가죽 기술로 명성을 이어온 곳입니다. 클락은 전용 여행용 파우치에 넣어 휴대할 수 있으며, 여행용 파우치는 손목시계 3 점을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여행용 팩 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돋보기, 정밀한 스트랩 분리 도구, 드라이버로 엄선된 필수 도구 키트가 더해져 완벽한 세트를 이룹니다.

또한, 클락과 함께 전용 디스플레이 스탠드가 제공되어, 여행 중이 아닐 때도 책상이나 침대 옆 탁자 위에 두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우치와 여행용 팩, 우아한 디스플레이 스탠드는 모두 이탈리아 럭셔리 메종인 스케도니에서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최고급 탠 컬러의 내추럴 오픈 포어 카우하이드 레더로 제작되었으며, 이와 대비를 이루는 베이지 핸드 스티치 디테일을 더해 오래도록 변치 않는 품질과 디자인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상세 정보

메모박스 트래블 클락

케이스: 티타늄

크기: 직경 69mm, 두께 18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256

기능: 시, 분, 알람 - 시간 및 알람 파워 리저브 디스플레이

파워 리저브: 12 일(약 288 시간)

다이얼: 오팔린

방수: 3bar

액세서리: 여행용 파우치, 여행용 팩, 스케도니 가죽 소재의 디스플레이 스탠드

레퍼런스: Q614T020

매년 고유 번호가 부여된 100 피스 한정 생산

마크 뉴슨 소개

마크 뉴슨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기술과 조각이 어우러지는 지점, 즉, 정밀함이 움직임을 만나고 기능이 형태가 되는 지점에서 오브제를 창조해냅니다. 그의 작품은 유려한 라인, 정교한 소재, 디테일에 대한 집요함이 특징입니다. 마크 뉴슨은 과감한 단순함과 첨단 엔지니어링을 결합한 *아방가르드*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항공, 자동차, 기술, 럭셔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브랜드들과 협업해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혁신과 장인 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진 예거 르쿨트르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뉴슨은 애틀라스와 메모박스 같은 아이콘들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것을 덮어쓰기보다는 그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정체성을 보존한 채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를 도입하여, 과거와 현재, 기억과 창조 사이를 잇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마크 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와의 협업은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호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예거 르쿨트르를 깊이 동경해 왔습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탁월하고 일관된 디자인 유산을 이어가며, 혁신을 향해 끊임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평생 타임피스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예거 르쿨트르와 여러 차례 협업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2008년부터 애틀라스를 아름답게 재해석한 작업은 메종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